

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 관계자 간담회(3차) 결과보고

결 재	주무관	마을건강팀장	건강도시과장	보건소장	
	김연희	안계숙	백기운	11/24 홍혜정	

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운영 자치구 담당자 및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2014. 11.

복명자 : 간호6급 성명 : 김연희

복 명 내 용	
건 명	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 관계자 간담회(3차)
일 시	2014. 11. 20(목) 16:00 ~ 18:00
장 소	보건소 5층 식생활정보체험관
참석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소장, 건강도시과장, 마을건강팀장, 김연희 - 우성구 두루두루배움터대표 - 광진구 보건행정과 이재경 팀장, 신희희 주무관 - 노원구 보건위생과 조연순 팀장, 정경미, 오수진 주무관 - 노원구 함께걸음 의료사협 관계자(강봉심, 주희준, 정정아) 등 총13명
내 용	<p>□ 구별 참여형 보건지소 진행현황 공유</p> <p>○ 중구 약수, 황학 보건지소 진행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황학동 중앙시장 EM(유용미생물) 활용 악취저감 시범사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을건강조사결과 개선이 시급한 건강위해요인으로 중앙시장 악취문제 대두되어, 타 자치구 EM활용사례 적용 시범사업 실시(9~10월) • 시장 상인회, 지역주민(악취검증단), 관련부서 등 협력체계 구축 • 상인회의 악취저감 위한 자발적 노력 강구 및 지역주민 환경감시단 활동 예정 - 보건지소 실무인력 대상 '건강활동가 양성교육'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 5주 10시간 과정 • 주민조직화, 주민대화, 지역알기, 건강공동체 사례탐방 등 - 보건지소 설치 공사 착공되어, '15. 2월경 개소 예정

○ 광진구 자양건강센터 진행현황

- 건강한마당 행사 개최 : 건강상담, 만성질환 검진 등을 통한 센터 홍보
- 자양4동 주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보고회(11.13)
 - 보고서 발간 전 주민들의 추가적 요구 수렴위해 설명회 개최
 - 요구도 주요결과,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분야 요구도 크며, 상담기능(특히 취약계층 및 어르신)의 확대 등으로 나타남
- 다문화가정 구강관리사업이 구청내 6개 우수사례로 선정

○ 노원구 상계보건지소 진행현황

- 노원 함께걸음 의료사협과 함께 주민조직화사업 전반 위탁 협력
- 주민건강요구도조사 실시 진행
 - 상계2동, 4동 주민 250명 대상 요구도 조사 실시하여 현재 분석중이며, 추후 자료 공유 예정
- 주민건강준비위원회 회의 2회 진행함

○ 중구 주민조직화 활동현황 - 두루두루배움터

- 약취저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는 중이며, 시범사업 이후의 지속적 활동에 대해 논의 중임
- 주민조직화가 누구를 위한 조직화인가 즉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함
- 주민참여 건강조사사업의 목적이 단지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알기 위한 것 또 그 문제를 시민단체나 보건소가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되며, 그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알고,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함

○ 노원 주민참여사업 진행현황 - 함께걸음 의료사협

- 주민요구도조사 진행 조사원 모임 진행
- 지역주민 대상 '건강참여단' 모집 중이며 20명 정도 신청한 상태임
 - 주로 여성으로 40~50대 주부가 많고 남성과 젊은층도 포함됨
 - 다음주경 모임을 통해 교육, 건강참여단의 역할 및 내용, 시범활동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
- 건강참여단과 기존 마을주민조직, 시민단체 등으로 건강네트워크 구축

□ 참여형 보건지소 및 주민조직화 전략 논의

- 노원의 경우 중구와 달리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역량있는 주민발굴 용이
- 중구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므로 특히 새로운 주민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
- 지역특성에 따라 기존 직능단체내 통·반장 조직 활용하여 건강실천단이나 건강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

- 중구의 경우 약수는 기존 조직을 토대로, 황학은 새로운 조직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
- 노원의 경우 구청장 지시로 주민건강준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, 광진과 중구는 아직도 진행 상태임
- 참여형 보건지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조직 특히 건강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가가 관건이며,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음
- 참여형 보건지소가 자치구별로 자치구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, 현시점에서는 ‘참여형 보건지소’가 ‘일반 보건지소’와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개념규정 필요하며, 또한 자치구별 접근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필요
- 따라서 다음 간담회는 ‘참여형 보건지소란 무엇인가?’에 대한 정의와, 자치구별 ‘참여형 전략(방법)은 무엇인가?’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함

□ **향후 일정(4차 간담회)** : ‘15. 1월 15일(목) 16:00~ , 광진구 자양지소

관련사진



끝.